

“새터민에게 부처님 자비 전해요”

“북한동포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반감이 교차한다. 군사적으로야 대처하고 있지만 북한 사람에게 ‘동포’라는 말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도 같은 민족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굶어죽는 어린이, 식량난을 이기지 못해 총탄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주민들을 보면 코끝이 찡할 정도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온 새터민(탈북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제대로 자립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도 못마땅해 할 정도다.

국내에서 ‘북한주민돕기’ 타이틀을 걸고 이뤄지는 사업은 크게 북한사회에 남아있는 사람을 돕는 사업과 새터민 돕기 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접근이 쉽지 않다. 한국 JTS에서 민간지원을 이끌며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식량 공급 등을 하고 있으나 북한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 입국에 성공한 새터민들의 경우 새터민 교육기관 하나원에 3주간 적응훈련을 받은 후 사회로 보내진다. 사회로 나온 새터민에게는 통일부에서 2008년 1월 개정된 ‘새터민취업보호제도’를 시행하며 남한 내 터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새터민취업보호 제도는 새터민이 급격히 늘어난 1994년 이후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 제도는 우선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2분의 1을 국고지원해 사업주에게 새터민 고용 이득을 준다. 대상자에 따라 1년 연장가능하며 기본은 2년 지원이다. 1년 연장신청 가능 대상자는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사람 ▲보호결정 당시



새터민은 희망을 안고 한국땅에 오지만 그 정착 과정은 쉽지 않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왼쪽 사진)과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의 새터민 문화사업 모습.

천태종 생활지원품 전달·조계종 새터민 법회 개최 새터민 취업보호·문화 적응 위한 지원 손길 절실

60세에 도달한 사람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임금은 1년차는 월 50만원 이내, 2·3년차는 월 70만원 이내로 규정돼 있다.

새터민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보호)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새터민이 취업을 한 후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에 먼저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새터민 담당자에게 취업보호신청을 먼저 해야 성립된다.

불교계의 경우 현재 새터민 지원 사업은 각 복지관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종단적 차원에서 보자면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가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창립된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그 동안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안성 하나원 본원 원생들이 3

주에 한 번 퇴소식을 할 때마다 필요한 생활지원품을 준비해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전한 생활지원품은 의료기기·시계·가방 등 다양하다. 또한 천태종 사찰인 인천 황룡사에서도 일일찾집 등을 1년 2-3차례 열며 새터민지원사업을 돕는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김금희 과장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객지생활을 하면 힘든 일이 많은데 새터민들은 문화까지 다른 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사단에서는 안성, 시흥, 대성공사 등 3곳의 하나원에 통일부와 관련된 소속 포교사들을 각각 파견, 각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법회를 집전한다.

가장 규모가 큰 안성의 경우 새터민이 한 기수에 200명이고 법당에는 매주

40-50명 정도가 찾아온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할 음식·도서·불경 등 모든 물품이 항상 모자라는 편이다.

8년째 하나원 새터민 법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포교사단 통일분과위원회 허정원 위원장은 “하나원 안에서의 새터민 지원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겪는 직장 문제, 문화 적응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이 새터민에 무관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새터민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책이나 물품 등을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김강진 기자

새터민 지원하고 있는 곳

- ◆통일부 새터민취업지원사이버센터: www.sjobcc.or.kr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02)591-3822
-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02)730-2401
- ◆조계종 포교사단: (02)927-0589



어떤 봉사활동도 그 기쁨에는 ‘삶’이라는 대전제가 있다. 살아야 할 힘이 있을 때 격려해 더욱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봉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그런데 ‘호스피스 봉사’만큼은 여기서 한 발 떨어져 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다. 약 10년 동안 이러한 봉사를 해온 전옥자(57·사진)씨는 죽음의 문턱에 선 누군기를 편하게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주위를 살핀다.

“편안한 임종 돕고 싶어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삶의 끈을 함부로 놓지 않아요.”

조용한 목소리로 전씨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느낀 감회부터 털어 놓는다. 그가 죽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꽤 된 일이다. 서울 성동사 열불봉 사암 지장회 활동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늘 드나들었다. 그러다 한 순간, 한 걸음 더 나가 호스피스 봉사를 해보면 어떻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교육부에서 시작해 호스피스 이론을 섭렵했다. 이제는 자신이 서울 광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상담사 강의를 할 정도다.

그의 호스피스 봉사는 어떤 단체에 매여있지 않다. 전씨가 한 번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그 유가족이 다른 임종직전의 환자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 대충도 힘들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자다가 한 밤중에 뛰어나거나 새벽에 귀가 하는 일은 예사다. 이렇게까지 ‘죽음’과 함께 할 복할까 싶은 의문까지 생긴다. 그는 “행복하다”고 응수한다. 정작 전씨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금기시 하고 있어요. ‘부정한다’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아이들은 데려오지도 않아요. 과연 이런 것이 정상적일까요.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는데... 또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 할수록 환자 가족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가족과 환자 간에 갈등을 겪는 모습 등이 전씨의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요즘 아예 호스피스 활동을 ‘가족화해의 시간’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봉사를 하러 가면 우선 가족들부터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



지요. 그래야 돌아가시는 분도, 남은 사람도 후회가 없어요.”

봉사활동 경력이 쌓여 가면서 전씨는 또 다시 고민이 하나 생겼다. 호스피스 봉사와 함께 장례까지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2004년 ‘수인회’라는 상담봉사사업체다.

“돈을 벌 목적이라면 이 사업 말고도 할 것이 많습니 다. 어디까지나 이 사업체는 봉사활동의 연계 선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의식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전씨는 흔들리지 않고 사업체를 지키며 봉사를 계속해왔다. 양심껏 대가를 받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 장례의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체. 전씨의 품 속에서 커 가는 ‘수인회’의 모습이다.

전씨의 가방에는 항상 목탁과 염주가 들어있다. 누군가 상을 당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것이 안타까워 그는 늘 준비를 하고 다닌다. “제가 다니는 곳마다 가족이 화합하고 제대로 된 불교상장례문화가 꽃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똑바로 보고 생명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게 된다면 사회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글·사진=김강진 기자

김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터전이 김포시에 설립됐다.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불비니(대표이사 영담)가 설립·운영하는 ‘가연마을’(원장 재현)이 2월 15일 김포시로부터 설치 및 운영허가를 받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마리 382번지에 대지면적 1650㎡, 연면적 180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된 김포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정기건강검진을 통한 의료제할서비스 ▲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미술치료·음악치료 등의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현장체험활동 등의 사회적응훈련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연마을 초대 원장 재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장애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불자들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현제 가연마을에서는 1-2급 장애인의 입주 희망신청과 자원봉사 및 후원 등을 기다리고 있다. (031)983-0108 김강진 기자

스리랑카복지타운 운영시찰모집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준공을 앞두고 복지타운 운영 시찰을 모집한다. 조계종은 지난 2004년 12월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스리랑카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복지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6년 3월 착공, 봉사를 추진해 왔다.

스리랑카 감파지방 파살라 지역에 위치한 복지타운은 2만5000여 평의 대지에 5개의 보육시설, 유치원, 행정도, 관리숙소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6월 1차 준공된다.

운영시찰은 복지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 지원자격은 조계종 소속 사찰 및 불교단체로, 어린이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거나 해외어린이 보육시설을 지역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 (02) 2011-1823 여수형 기자

2008학년도 구룡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교육하는 범음범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 입학 안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수처 :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5-5) 053)982-1417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4일까지(청강생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보우승가대학 법패과 교수, 전 대구중무원 범음범패연구원 강주)
- 강 사 : 자운스님, 혜성스님, 일모스님(대구중무원 범음범패연구원 연구과정 졸업)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오전 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 뜻있는 분 동참바람]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의 내용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초 : 목탁치는법, 천수경, 도량경, 종성 예불 : 향수해례, 사성제,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정(사시마지), 퇴공, 각단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명시식, 외 기타 : 장의법, 방생의식, 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범패) 할향, 등계, 함장계, 고행계, 개계, 쇄수계 복청계(천수다라니)도량계, 참회계, 천수바라, 도량계, 요잡바라, 등 (바라, 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 의식 본과정(제계, 안채비, 사물다루는과정) 시연, 대령, 관음, 신중작법, 상단불공(지장정회) 중단퇴공, 관음시식, 봉송회향, 공덕계 ※ 다계작법, 요잡바라, 관음바라, 회의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니바라, 육언이, 운심계, 가지계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범주, 바라지, 목탁, 태경, 북, 요령) 2.작법고급과정(사방유신, 기경이, 향화계, 범고무, 음남) 3.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특강 : 절안의식, 생전생철 예수제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학장 원봉